

이의리 조기 강판에도...1위 지킨 '베테랑의 힘'

'팔꿈치 이상' 이의리 1.1이닝만에 교체...김건국 긴급 투입
서건창 2루타...피쳐 보크 LG에 5-4로 역전승 '위닝 시리즈'



'호랑이 군단'이 부상 약재를 받고 '다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위닝시리즈를 확보했다.

KIA 타이거즈가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5-4 승리를 거뒀다. 시즌 첫 만남에서 제임스 내일의 7이닝 완투와 김도영의 쓰리런 포함 4안타로 7-2 승리를 거뒀던 KIA의 연속. 전날 탈환한 1위 자리도 굳게 지켰다.

투타에서 부상 변수가 발생했지만 '베테랑'의 힘으로 만든 역전승이다.

마운드에서는 이의리가 2회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일찍 물러났다.

1회 2사 만루 위기를 넘겼던 이의리가 2회에도 선두타자 문성주에게 좌중간 2루타를 맞는 등 불안한 출발을 했다. 이의리가 구본혁과 신민재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고 1루 견제를 하다가 송구 실책도 기록하는 등 3실점을 하며 흔들렸다.

그리고 1사 1·3루에서 오스틴에게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며 다시 만루가 됐고, 이의리가 벤치에 사인을 보냈다. 왼쪽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낀 이의리는 결국 등판을 마무리했다.

급히 마운드에 오른 김건국이 문보경을 상대로 4-6-3 병살타를 만들어내면서 이의리의 추가 실점은 막았다.

김건국이 급한 불을 꺼주자 타자들이 움직였다. 0-3으로 뒤진 3회말 김도영이 내야안타를 치고 나간 뒤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상대를 흔들었다. 김도영은 김선빈의 우중간 안타로 홈에 들어왔다.

4회에는 소크라테스가 기습번트로 상대의 허를 찔렀다. 공을 잡은 LG 선발 엔스가 1루로 약송구를 했고, 소크라테스는 2루까지 내달렸다. 소크라테스는 이창진의 번트로 3루로 간 뒤 최원준의 적시타로 홈에 들어오면서 2-3을 만들었다.

'투수 최고참' 김건국이 3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초반 싸움을 이끌어냈지만 2-4로 뒤진 6회 다시 KIA에 부상 약재가 발생했다.

6회초 광도규가 등판해 선두타자 신민재와 맞대결을 했다.

3구째 파울 타구가 3루 쪽으로 높게 뒀고, 박찬호의 부상으로 유격수 역할을 맡은 박민이 공을 쫓아 익사이팅존으로 달려갔다. 공을 잡으려던 박민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익사이팅에 충돌했다. 무릎을 다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박민은 앰블런스를 타고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다시 한번 부상이 발생하면서 여수선한 상황에서 광도규가 탈삼진 2개를 더한 삼자범퇴로 6회를 정리했다. 7회는 장형석이 무실점으로 처리했고, 이어진 공격에서 KIA가 추격에 나섰다.

김태군이 선두타자로 나와 우전안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대타 서건창의 볼넷으로 2루로 향한 김태군이 김도영의 좌익수 플라임 때 공격적인 주루로 3루에 안착했다. 이어 김선빈의 좌전 적시타가 나오면서 3-4가 됐다.

8회초 '필승조' 전상현이 10개의 공으로 이닝을 끝내주자 KIA가 이어진 공격에서 역전극을 펼쳤다. 2사에서 최원준이 중전안타로 공격 불씨를 살렸다. 대타 고종욱의 안타로 2사 1·3루, 서건창이 우측으로 멀리 공을 보냈다. 홈런을 예상했던 타구지만 펜스에 공이 박히면서 2루타가 됐고, 3루 주자 최원준의 홈인으로 4-4가 됐다.

이어진 2사 2·3루에서 LG투수 유영찬의 보크가 나오면서 KIA는 5-4 역전에 성공했다.

1점의 리드를 잡자 9회초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했다.

홍창기와 박해민을 유격수 땅볼과 삼진으로 처리한 정해영. 김현수의 2루 내야안타가 나왔고, 오지환의 좌전안타까지 이어졌지만 실점은 없었다.

정해영이 문보경을 상대로 초구에 유격수 땅볼을 유도했고, 공을 잡은 유격수 김선빈이 2루에 있던 서건창에게 공을 넘기면서 승리를 위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채웠다. 이와 함께 정해영의 6경기 연속 세이브가 기록됐다.

정해영은 "LG에 좌타자가 많다. 힘있는 좌타자도 있고, 다 정교하니까 승부하기 어려웠다. 1점 차이기도 해서 쉽지 않은 승부였다. 승리를 지켜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서건창이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9회 동점 적시타를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벌써...프로야구 '100만 관중'

70경기만에 101만2624명

프로야구 관중성이 뜨겁다. KBO리그가 70경기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화요일이었던 지난 9일 챔피언스필드 등 전국 5개 구장에 6만4877명이 입장하면서 2024시즌 누적 관중수가 101만2624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23일 시즌 개막 이후 70경기만에 이른 100만 관중이다.

이는 65경기에서 100만 관중을 돌파한 2012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다.

관중성 열기는 총선날이었던 10일에도 이어졌다. 공휴일을 맞아 전국 3개의 구장에서 매진 사례

가 이뤄졌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의 2만500석이 오후 1시 20분 모두 팔려나가면서 KIA의 시즌 4번째 만원 관중이 기록됐다. 이와 함께 KIA의 홈 7경기 누적 관중수는 11만2233명이 됐다. 평균관중은 1만6033명이 됐다.

삼성과 롯데의 경기가 열린 사직구장의 2만2758석도 가득 차면서 두 번째 매진 사례를 이뤘다.

두산과 한화과 만난 잠실도 만원 관중이 채워졌다. 이날 잠실에 2만3750명이 입장하면서 두산의 시즌 홈 4번째 매진이 기록됐다. 특히 한화는 올 시즌 15경기 중 11경기를 만원 관중 앞에서 치르며 흥행의 중심에 서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후배들 부상 안타깝다"

이의리 엔트리 말소·박민 재활 3주 소요...퓨처스 윤도현 '골절'

연승을 이끈 '투·타'의 베테랑들에게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부상을 입은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KIA 타이거즈는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5-4 역전승을 거두고, 연승을 기록했다. 이날 투·타에서 부상자가 나왔던 만큼 쉽지 않았던 경기였지만 '투수 최고참' 김건국과 '17년 차' 서건창이 베테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다.

LG의 외국인 투수 디트리크 엔스를 만난 이날, KIA 선발로 나선 이의리(사진 오른쪽)는 3실점을 한 뒤 2회 1사 만루에서 팔꿈치에 이상을 느끼면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선발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찍 물러났고, 1사 만루라는 위기가 눈 앞에 펼쳐졌던 만큼 일방적인 흐름이 전개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급히 마운드에 오른 김건국이 문보경을 상대로 2루 땅볼을 유

도하면서 4-6-3의 병살타를 만들어냈다.

김건국은 이날 3이닝을 1실점으로 막으면서 기 싸움을 해줬다.

김건국으로 위기를 수습했지만 부상 약동은 6회에도 발생했다. 유격수 박민이 부상자가 됐다. 박찬호가 허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져있던 유격수로 선발로 출장했던 7일 삼성전에서 실책으로 고개를 숙였던 박민은 9일 LG전에서는 번트 작전을 수행하지 못해 마음을 졸였다.

팀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하며 10일 경기 전 가장 늦게까지 번트 훈련을 했던 박민은 2-4로 뒤진 6회 혼신을 다해 파울플레이 타구를 쫓다가 3루 익사이팅존에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박민은 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김규성이 대수비로 들어갔다.

그리고 7회말 김태군의 선두타자 안타가 나오자 김규성의 자리에 서건창이 대타로 들어갔고, 볼넷

을 얻어냈다. 김선빈의 적시타로 3-4로 추격한 뒤 8회말 서건창이 두 번째 타석에서 두 손을 번쩍 들어올렸다.

서건창은 2사 1·3루에서 유영찬을 상대로 우측으로 큰 타구를 날렸다. 큰 타구에 서건창도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지만 공은 우측 펜스에 박히면서 2루타가 됐다. 홈런은 아니었지만 서건창의 동점 적시타로 분위기를 살린 KIA는 상대의 보크로 역전에 성공했고, 9회 마무리 정해영을 투입해 1점차 승리를 완성했다.

위기의 상황에서 승리를 이끈 두 베테랑. 하지만 경기 후 두 사람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김건국은 "베테랑으로 역할을 잘 못했는데 그나마 조금 역할을 한 것 같다"면서도 "의리가 (아프지 않아서) 안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요즘 부상자가 많아서 베테랑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땀을 덜 흘리고 올라가자는 생각을 했다. 이런 경우에 몇 번 나가봤는데 많이 풀수록 오히려 힘만 더 들어가고 지친 경우가 많았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한 게 중요했다. 베테랑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어려운 경기였는데 1점 1점 쫓아가서 결국 이겼다. 팀에 많은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며 승리의 발판을 놓은 서건창은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타구가 안 보이고, 우익수가 멈춰있어서 홈런이 줄었다. 민망하다"면서도 "이제는 느껴지는 대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겠다.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하겠다. 중요한 상황이기도 했다. 행복하게 야구하고 싶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후배들의 부상으로 동갑내기 김선빈과 '키스톤 콤비'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서건창은 "사실 이렇게 선빈이가 유격수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다. 민이 부상이 너무 안타깝다. 보면서도 '나였으면 할 수 있을까, 펜스에 가서 부딪히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일이 많이 됐다. 열심히 했는데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에서 MRI 검진을 한 결과 이의리는 좌측 주관절 골극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선수 보호자원에서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휴식을 줄 계획이다.

박민은 왼쪽 무릎 내측 광근 부분 손상을 입었다. 다행히 수술은 필요하지 않고, 3주 재활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퓨처스리그에서 슬라이딩 도중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윤도현은 왼손 중지 약지 중수골 골절 부상을 입으면서 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